

SPECIAL FEATURE

Korean Artists Today 1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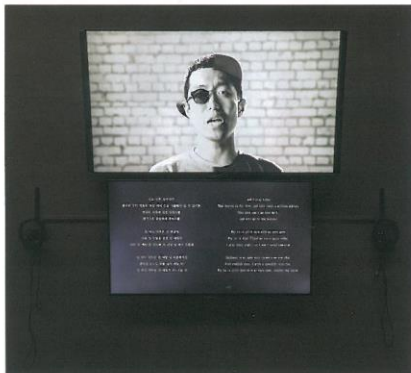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싣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김기라 Kira Kim / b. 1974

경원대 환경조각과 및 영국 골드스미스 컬리지 파인아트 졸업 **Solo Exhibitions** 페리지갤러리(2014), 타이베이 아티슈갤러리(2014), 서울시립미술관 (2013), 두산갤러리(2012), 국제갤러리(2009) 등 **Group Exhibitions** <올해의 작가상 2015>(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더 브레인 프로젝트 대전 비엔날레>(대전시립미술관 2014),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황지우 상산현대미술관 2014) 등 **Awards**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9) **Residencies** 인천아트플랫폼(2013), 한국-독일 NRW 프로그램(2012), 두산레지던시 뉴욕(2011) 등 **Address** salinza@gmail.com



위 · <붉은 수레바퀴_당신은 나의 것> 2채널 비디오 설치 10분 18초 2015
아래 · <블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비디오 설치 17분 30초 2015



이념과 실제의 대조 드라마 <붉은 수레바퀴_당신은 나의 것>(2015)은 잔인한 권력과 그 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희생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대조된다. 주름 깃을 세운 의상을 입은 미모의 여인과 물 폭탄 세례를 당하고 있는 이는 아름다움과 폭력을 대조한다. 권력은 아름답게 치장되며, 권력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다. 미술사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초상화들의 주인공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며 당대의 지배계급을 대표한다. 목에 바짝 붙어 있는 주름 깃은 사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지배적 위치를 강조한다. 수레바퀴를 닮은 고통스러운 주름 깃은 격세 유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을 은유한다. 뱃뱃한 주름 깃은 일하는 노동자가 결코 입을 수 없는 의상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수레바퀴가 돌 듯 반복된다. 김기라는 대조되는 두 화면을 통해 상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낫설게 한다. 상대방이 고통 받을 때마다 잔혹한 여주인공의 히스테리컬한 웃음소리는 커지며 그녀의 하얀 깃은 점차 붉어진다. 양쪽의 두 인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뭉개 놓은 피와 물이라는 액체의 이미지는 폭력적 현실을 재생산하는 경계가 소멸되어야 함을 말한다. / 이선영(미술평론가)